정책논단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한 제주밭담의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 승 진

I. 문제의 제기

어떠한 국가나 지역이 잘 살기 위한 방안으로는 추진되고 있는 아이템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유산이다.

유산(遺産)의 사전적 의미는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로 정의되고 있다. 선대가 삶을 영위했던 방식과 재산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대들이 이어받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편이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앙정부에서도 '13년 농식품부 국정과제 업무보고에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농촌 정주여건 실현을 위해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농업유산 지정' 추진을 포함시켰으며, '(가칭) 다원적 자원의 보전관리법' 제정안을 마련중에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이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하여 국가농업유산 등 제주지역의 자연과 문화가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의 지정·등재는 현재 UN 산하 2개 기관이 맡고 있는데 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문화나 경관 등 중심,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농업문화와 시스템 등을 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UNESCO가 지정한 자연과학분야 유산자원을 3가지나 보유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 그것이다. 여기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밭담'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흑룡만리 제주돌담밭'이 지난 1월 국가농어업유산[1]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주요업무의 하나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다움 보전 방안으로 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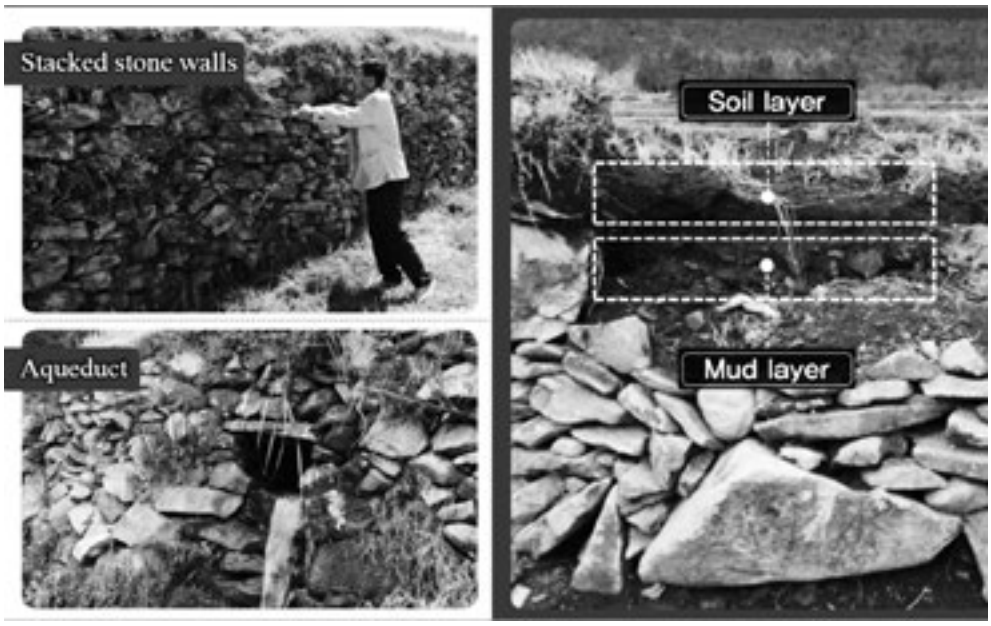
제주밭담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2]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제주밭담이 등재된다면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이어 제주의 농업과 유산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루게 된다.

〈사진 1〉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제주밭담 농업시스템'과 '청산도 구둘장논'

〈제주밭담 농업시스템〉

1) 우리나라 국가농업유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흑룡만리 제주돌담밭'과 완도의 '청산도 구둘장논' 2개를 최초로 지정함
2)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청산도 구둘장논〉

II.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요

1)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이란?3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은 국가 또는 지역이 사회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몇 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되어 온 농업적 토지 이용, 전통적인 농업과 관련되어 육성된 문화, 경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차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2년에 유엔식량 농업기관(FAO)이 창설한 제도이다.

FAO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전통적 농업제도와 생물다양성, 문화적 다양성과 지식체계들이 정책 및 시장의 실패, 빈곤 및 인구 압력, 부적절한 개발전략 등으로 인하

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가된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였다.

인정절차는 국가추천을 받아 입후보지 등록신청(FAO본부) 후, 현지답사 및 서류심사(FAO본부) 및 GIAHS 심사를 거쳐 인정하고, GIAHS 인정심사 심의회는 2년에 한번 개최하는 심사회에서 등록이 인정되며, 등록이 되어도 FAO로부터 자금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GIAHS로 등록될 경우, 농산물의 브랜드화, 농업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국가 및 제주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표 1〉 세계유산제도·람사협약, 세계농업유산제도 비교

구분	세계유산제도	람사협약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주관 부서	UNESCO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 상설 사무국	FAO
근거	세계유산협약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대상	**- 문화유산** □ 기념물·건조물군 : 건축물, 조각 및 회화, 유물 및 구조물 금석지,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 유적지 : 고고학적 유적지 **- 자연유산** □ 자연의 기념물, 자연유적지 생물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 **- 복합유산** □ 세계유산협약 제1조와 제2조에 정의된 문화 및 자연유산 정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충족시키는 유산	□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으로 갯벌,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 논 등이 포함됨 □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안	□ 독창적인 농업 제도 및 생태 경관지역 □ 농업과 관련된 수려한 경관지역 □ 농업생물 다양성의 보전지역 □ 고유한 농사지식체계의 적응 지역
선정 기준	- 문화유산 : 인간의 창의성, 인간가치의 반영, 문명의 독보성, 인류역사의 단계를 예증하는가? - 자연유산 : 뛰어난 자연미, 지구 역사의 주요 단계, 생태학·생물학적 진행과정, 생물학적 다양성을 대표하는가?	□ 대표적이며 희귀한 자연 습지 □ 멸종위기종, 생태군집의 서식지 □ 동식물종의 군집지 □ 2만 마리 이상의 물새군집지 □ 고유어종서식지 등 9개 기준을 적용	□ 제도 자체의 기준 : 우수성, 역사성, 중요성 □ 상황적 기준 : 대표성, 외부적 외협, 정책 및 개발 적응성 □ 프로젝트 수행 기준 : 통합성, 공동펀드 능력, 접근성
지정 절차	국제기념물유적유원회(ICOMOS), 국제문화재보전센터(ICCROM),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의 검증	협약 가입 시 1개 이상 습지를 지정(의무)하면 자동으로 등록됨.	□ 제안서 제출 □ 심사 □ 후보로 웹 사이트에 등재

3) www.fao.org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작성.

구분	세계유산제도	람사협약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
구역 지정	문화재보호법, 지구단위 계획, 용도지구의 중복 지정으로 보호기능	습지보호지역(습지보존법)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 가능(환경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해당되는 국내법이 없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12, 한국농어업 · 농어촌 유산발굴과 보전, 2012.

2)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현황

(1) 대상지역

FAO는 2012년 말 현재 19개의 대상지역(Pilot systems)[4] 지정되었으며, 2013년 5월말에 6개 지역[5]이 추가 지정되어 총 25개 지역이며, 다수의 후보지역(Candidate systems)이 등재를 준비 중에 있다(〈그림 1〉 참조).

▶ GIAHS의 19개 대상지역(Pilot systems)[6] :

- Ghout 시스템, 알제리(Ghout System, Algeria)
- Oldonyonokie/Olkeri 마사이 목축업 문화 유산, 케냐(Oldonyonokie/Olkeri Maasai Pastoralist Heritage Site, Kenya)
- 아틀라스 산맥의 오아시스 시스템, 모로코(Oases System in Atlas Mountains, Morocco)
- Engaresero 마사이 목축업 문화 유산 지역, 탄자니아(Engaresero Maasai Pastoralist Heritage Area, Tanzania)
- Shimbwe Juu Kihamba 농업 임업 문화 유산, 탄자니아(Shimbwe Juu Kihamba Agro-forestry Heritage Site, Tanzania)
- 가프 오아시스, 튀니지(Gafsa Oases, Tunisia)
- 칠로 농업, 칠레(Chiloé Agriculture, Chile)
- 안데스 농업, 페루(Andean Agriculture, Peru)
- Aohan 드라이 랜드 농업 시스템, 중국(Aohan Dryland Farming System, China)
- 동의 쌀 물고기 오리 체계, 중국(Dong's Rice Fish Duck System, China)

4) www.giahs.org 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5) 아소 초원과 지속적 농업(일본, 구마모토현), 시즈오카의 차농법(일본, 시즈오카현), 쿠니사키반도 우사 통합 농림어업 시스템(일본, 오이타현), 회계산의 오래된 중국비자(중국, 저장성), 선화의 포도재배와 도시농업유산 (중국, 하북성), 가나도의 해수면 농업시스템(인도, 쿠타나드)

6) 19개 지역은 현재 giahs 홈페이지에 site로 올라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작성함

- 하니 라이스 테라스, 중국(Hani Rice Terraces, China)
- Pu'er의 전통 차 Agrosystem, 중국(Pu'er Traditional Tea Agrosystem, China)
- 밥 물고기 문화, 중국(Rice-fish culture, China)
- 만년 전통 쌀 문화, 중국(Wannian Traditional Rice Culture, China)
- 전통적인 농업 시스템, Koraput, 인도(Traditional Agriculture Systems, Koraput, India)
- 카슈미르의 사프란 유산, 인도(Saffron Heritage of Kashmir, India)
- 노토의 사 토야마와 Satoumi, 일본(Noto's Satoyama and Satoumi, Japan)
- 일본 따오기와 조화 사도의 사토야마, 일본(Sado's satoyama in harmony with Japanese crested ibis, Japan)
- 푸가 오 라이스 테라스, 필리핀(Ifugao Rice Terraces, Philippines)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총 25개 중에 아프리카는 6개, 중남미 2개, 동남아 17개 지역이며, 현재 중국(9개)과 일본(5개)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은 하나도 지정이 안되어 있다.

〈그림 1〉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주요 사례

안데스 농업

잉카시대 농법유지
저지대(옥수수),
고지대(방목장),
밭 주변 굴에 물을 저장하여 냉해 방지

페루(30,798ha)

치로에섬 농업

감자의 원산지
200여종의 감자 농업

칠레(10,616ha)

이푸가오 계단식 논

고산지대 대규모 다랑이 논
생물다양성의 보전

필리핀(68,416ha)

머그레브 오아시스농업

사막지대의 토지이용
대추야자, 나무, 곡물의 상호작용
삶과 휴식의 공간

알제리(500ha)/
튀니지(700ha)

벼-송사리 농업

물고기를 이용한
벼 농사
물고기와 쌀의 공급
지역의 영양 수준 향상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의 감소

중국(461ha)

완족의 만년 전통 벼 문화농업

지역의 고유 품종 유지
병충해와 척박한 땅에 강한 품종
논 둘레 숲의 물 공급 및 생물다양성 보존기능

중국(200ha)

한니 계단식 논

산간지대 토지 및 물 이용제도
1만년 이상의 역사성
7만 ha 이상의 규모
효율적 물이용시스템

중국(13,011ha)

목가적 마시이 시스템농업

목축시스템과
고원생태시스템

케냐, 탄자니아

노토반도 사토야마와 사토우미 농업

계단식 및 해변의 토지 이용 농법

일본

사도시 사토야마 따오기농업

따오기를 이용한
저농약 농법

일본(1,866ha)

(2) GIAHS 지정기준

GIAHS에 등록되기 위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첫째는 해당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기준이고, 둘째는 정황적 기준, 셋째는 프로젝트 수행 기준이다.(〈표 2〉 참조).

최근에는 고유시스템인 생물다양성, 식량안보, 문화, 지식시스템, 경관인 5가지 내용이 골고루 포함되어져야 지정하는데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표 2〉 GIAHS 주요 지정 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I. 시스템의 고유특성 (systems criteria	1. 현저한 특징 (outstanding characteristics)	□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 경관, 토지, 수자원의 관리 □ 식량안전과 생계유지 □ 사회조직과 문화 □ 지식체계와 및 농가 단위의 기술 □ 기타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된 재화와 용역
	2. 지속성의 역사 (proved history of sustainability)	□ 경제적 활력 및 지속가능성 □ 적응적 능력 □ 인간 생태적 지속가능성
	3. 세계적 중요성 (global significance)	□ 공공성 □ 부가가치
II. 정황성 (contextual criteria)	1. 대표성 (representation)	□ 지리적, 생태적, 제도적 대표성 및 영향력 □ 전시효과 □ 현저한 대표성
	2. 외부의 위협 (external threat)	□ 외부적 위협의 존재
	3. 정책 및 개발 적용성 (policy and development relevance)	□ 정책의 적용가능성
III. 프로젝트 수행성 (project implementation criteria	1. 프로젝트 통합성 (project integration)	□ 파트너십
	2. 공동 펀드의 능력 (co-finance potential)	□ 공동 펀드 가능성
	3. 프로젝트 접근성 (project approach)	□ 국제협약 □ 프로그램적 접근 및 생태계적 접근 □ 지역사회의 권한 및 분권화

자료 : www.fao.org/nr/giahs 홈페이지.

(3) 향후 GIAHS 공통 테마[7)]

세계농업유산의 향후 공통적인 테마로는 △저비용・낮은 과학기술・저충격・친환경적・지속가능한 농업기술로 지역 고유지식의 효율적 활용, △현대농업에 적용가능하고 글로벌 아젠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통농업과 생태지식 만들기, △인간의 활동에 대한 초점으로 지역고유 지식과 생태적 문명화 개발의 활기찬 보전을 위한 적절성, △수용력 향상은 GIAHS 선정지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개선 중요,

7) 이응철(일본 사가대학 교수) 내부 발표자료를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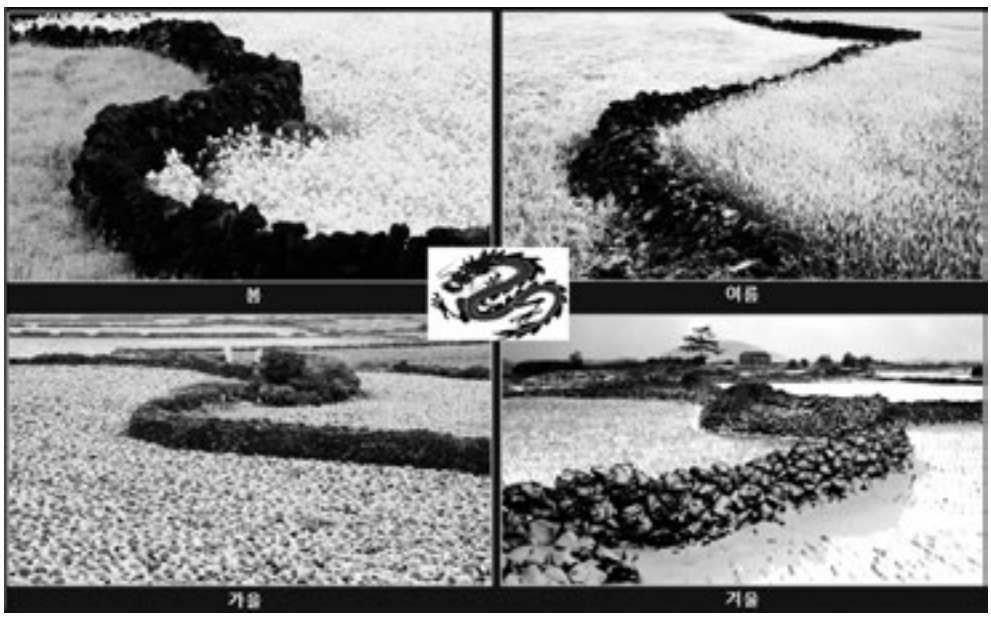
△GIAHS 계획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혁, 그리고 국가정책속으로 유도, △경제활력 보장·휴먼 웰빙 기여·GIAHS의 재정력 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Ⅲ.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제주밭담의 과제

이미 '흑룡만리 제주돌담밭'이 지난 1월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주요업무의 하나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다움 보전 방안으로 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제주의 돌담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지구 반 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한다[8]. 검은색 현무암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흘러가는 그 모습이 흑룡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흑룡만리'라 부른다(사진3 참조). 제주의 대표적 경관의 하나인 밭담이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밭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진 3〉 제주밭담의 사계[9]



8) 고성보 교수 연구자료에 의하면 제주돌담의 총 길이를 36,000㎞로 추정함(밭담은 약 61%인 22,108㎞)
9) 제주영상동인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도움을 주신 제주영상동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밭담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본 이시카와현(石川県) 나나오시(七尾市)에서 개최된 세계농업유산국제회의와 이 회의에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한·중·일 워크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계농업유산 등재 T/F팀)는 국가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가치를 발표 및 홍보했으며 FAO 관계자와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이를 계기로 FAO 코하프칸 세계농업유산기금 의장 등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제주를 방문해 현장실사를 함으로써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앞으로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이러한 발걸음에 맞추어 제주밭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철저한 세계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우선 세계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GIAHS의 변화상에 따른 심사위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질 높게 보완하는 작업과 국제회의에서 맺어진 인적네트워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위원으로 약 10 ~ 15명 정도가 구성되고 있어 철저한 보고서 작성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로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각 심사위원들의 특성과 전공, 그리고 국적 등을 파악하여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미리 자문 등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FAO 세계농업유산에 많이 등재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세계농업유산 등재 시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포함될 경우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2) 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주요업무의 하나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다움 보전 방안으로 농업유산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지역 전통농업, 농업자원 등의 국가농업유산 지정과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농어업·농어촌 유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등록준비위원회, 등록추진위원회 등 조직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원조례에는 농업유산 보존·관리 및 참여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포함되어야 하며, 농업유산 지원센터, 농업유산 아카데미 및 전통농업문화학교 운영 등 농업유산의 중·장기적 활용을 위한 장치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제주밭담의 가치 제고와 도민 공감대 확대

세계농업유산국제회의와 한·중·일 포럼 시 보여준 제주밭담에 대한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어떻게 유지·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세계농업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을 제주지역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 방법과 효과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 제주도, 언론, 농민단체,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도민이 하나가 되어 GIAHS가 향후 훌륭한 제주도의 자원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보존·관리 등 지원시스템 구축

농어업 · 농어촌의 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유산의 성격에 따라서 규제와 지원제도를 마련하되, 기본적으로 기존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과는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유산이 지역에서 고립되어 화석화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차별성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 · 계승 및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농어업 · 농어촌유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가 보전과 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이 농어업 · 농어촌유산을 스스로 계획하고, 활용하면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계획 및 시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어업 · 농어촌유산의 보전, 계승 및 유지활동을 위한 공동 활동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업유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농업유산에 대한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D/B 구축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 및 자긍심 부여 및 각종 자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5) 제주도에 산재한 다양한 국가농업유산 발굴 및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추진

제주지역 농어업 · 농어촌유산 지정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어업 · 농어촌유산과 관련된 문화재인 2개(제주말방아, 제주성읍) 이외 제주지역 농어업 · 농어촌유산 자원실태 파악 등 농어업유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제주지역 농어업 · 농어촌유산 관련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인 경우, 우리나라 농어업 유산제도 선정기준(식량생산, 경관 및 미관, 주민참여 및 인식확대 등)과 FAO의 세계농업유산 지정기준(시스템의 고유 특성, 정황성, 프로젝트 수행성)에 적합한 유산이나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구역을 선정·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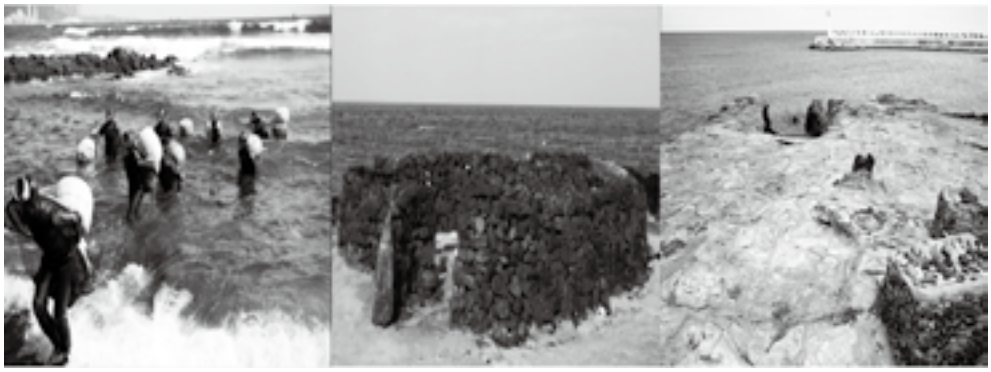
농어업 · 농어촌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FAO의 GIAHS 기준에 맞게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을 해야 하며, 최근 일본인 경우와 같이 GIAHS 등록을 위해 2002년부터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1년에 2개 지역, 2013년에 3개 지역이 성공하듯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농어업유산에 대한 조사와 D/B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각 지역과 마을에 숨어 있는 유산을 발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과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

〈사진 4〉 돌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사례

밭담과 산담　　돌하루방　　원담

〈사진 4〉 돌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사례



해녀　　서림연대　　소금빌레

Ⅳ. 결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중인 제주의 밭담은 제주섬에서 농업이 시작된 이후 1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섬사람들의 손길에 의해 한 땀 한 땀 쌓아올려진 거대한 유산이다. 돌밭을 일구면서 쏟아져 나오는 돌들을 쌓아올려 제주 특유의 바람과 마소의 농경지 침입을 막아 농작물을 보호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국가농어업유산인 제주밭담의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은 그 가치를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밭담은 농업적 가치는 물론, 문화·생태·경관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 등 미래가치 또한 충분하다. 제주도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록되면 농업 및 농촌마을, 산골, 바다 등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인책이 촉진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농산물 및 상품의 국제적인 인정과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제주지역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를 지역의 보물로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제주자원의 매력도도 제고가 될 것이다. 강한 바람에 흔들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제주밭담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과 세계농업유산으로의 등재 추진은 전통문화와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시대인식일 뿐 아니라 제주인의 정신을 나타낸 것이라 본다. 제주발전포럼

〈사진 5〉 수 천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온 제주밭담

* 참고문헌

고성보 외 3인, 제주의 돌담,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9.
완도군, 세계농업유산 제안서, 2013.6
이응철, 세계농업유산의 동향과 대응전략, 발표자료, 2013.6
제주도, 국가농업유산 제주돌담밭, 2013.1
제주도, 세계농업유산 제안서, 2013.6
제주영상동인, 돌의 나라, 제주, 2013.
제주영상동인, 제주돌담, 2012.
한라일보, 흑룡만리 제주밭담, 기획특집